

한국고전문화연구원

| 우리를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내일 |

Newsletter

새로운 길을 나서는 2020 / 11월 2주차

■ 영상택배 시즌2 - 여덟 번째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이 일궈온 대한민국 3편"



이번 호 뉴스레터와 함께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5층 역사관의 상설 전시관 3부, 1987년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나 - 대한민국 - 세계>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1987년 이후 한국 현대사의 사건과 기록들을 만나는 시간 권해드립니다.

○ 연구원 회원 소식

장근범 개인전
이런 가족 같은 가족

2020. 10. 14. 수 - 11. 21. 토

여는시간 10:30~18:00 일. 월. 화 휴관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16-17(자동차길 16-5) 전화 063. 905. 2366

초기 홍보자료와 기간이 다릅니다.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족들은 서로 서로 닮은 데가 많다.

그러나 모든 불행한 가족은 그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하다.

-톨스토이-

우리 연구원 장근범 운영위원이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서학동 사진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189-20)**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 작업은 가족의 개별적 구성원을 통해 사회적 활동과 가치를 이미지로 재현하고픈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다음달 21일 전에 전주에 오시면 서학동 사진관을 들리셔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진을 만나보시는 시간 권해드립니다. 매주 일,월,화요일은 휴관입니다. **전시회 관련 문의전화 / 063-905-2366**

동화의 마을로 가는 여행(1)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전임 연구원)



하이드 마을이 있는 스위스 마이엔펠트 기차역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영악하고 계산적이며 빈틈이 없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가기로 작정들을 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세상이 삭막해 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어느 작가는 그의 글에서 "세상이 너무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은 그 조직에 들어가기 어렵다"며 여유 없이 살아가는 뻘뻘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토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속에서 그리운 것이 '동화의 세계'이고 그 동화의 세계로 들어가고픈 생각이 간절해지기도 한다. 동화의 세계는 때로 논리나 과학적인 사고를 뛰어 넘기도 한다. 또 그 세계는 똑똑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 한데 어울린다. 동화속의 내용이 설령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감동 받는다.

유럽의 도처에 동화의 세계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요한나 슈피리, 인어 공주의 안델센, 피터 래빗의 베아트릭스 포터 등 그들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작가들과 동화는 지금도 현장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우선 스위스의 동화 마을 마이엔펠트로 가고자 한다. 이 마을은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할아버지와 살았다는 집, 하이디 박물관 등이 있는 '하이디 마을'로 알려진 곳이다. 물론 하이디는 실제 인물이 아니고 동화의 주인공으로 가상의 인물이고 마을 또한 인위적으로 조성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이디를 찾아 마이엔벨트로 향한다.

필자 역시 그런 줄 알면서도 찾아가보기로 하였다. 왜냐면 어린 시절 부터 익히 들어왔던 스토리인데, 사실 그동안에 읽은 것은 요약된 어린이용 동화였다. 그래서 하이디 마을 여행을 위해 원문을 번역한 책을 구입하여 읽어보았다. 그랬더니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 즉,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더더욱 그곳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스위스에 가기 전에 오스트리아부터 먼저 들렀다. 하이디 마을 마이엔펠트가 오스트리아 국경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츠부르크에서 야간열차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착오가 생겼다. 수차례 유럽여행을 다니면서 이용해본 야간열차는 대체적으로 누워서 잘 수 있는 시설로 되어있다.

그러려니 하고 기차에 올라보니 그게 아니었다. 그냥 의자로만 되어 있었다. 나 혼자 여행할 때는 모든 불편을 감수하지만 이번은 가족을 인솔(?)하고 가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난감하였다. 마치 주최 측의 실수로 불편을 준 미안한 상황이 벌어진 꼴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의자에 앉은 채로 밤새 힘든 여행을 하였다. 불편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이엔펠트 역에 내리니 새벽 5시였다. 이른 시간이라 호텔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침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역구내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주 작은 역이어서 그런지 승무원도 없고 대합실은 난방이 되지 않았다. 초여름이었지만, 알프스 산악지역이어서 그런지 매우 추웠다. 얼마동안 서로 붙들고 추위를 견디려고 했지만, 옷도 얇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추웠다.

그래서 일단 마을로 들어가 숙소를 찾기로 했다. 그러나 이른 새벽에 문이 열린 곳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래도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중 'Victor'라는 호텔이 눈에 띄었다. 물론 불도 꺼져있었지만 문을 밀어 보았더니, 열린다. 깜박 잊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이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을 불러도 아무 기척이 없다. 아무튼 실내로 들어 들어가니 살 것 같았고 어찌됐던 직원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다.

얼마 후 여직원이 나왔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리저리 말을 해보니 포르투갈의 어느 섬에서 왔다는 것 같은데, 정식 직원이 아니고 그냥 심부름하는 아이였던 것이다. 그래서 방명록에 기재해놓고 기다렸다. 아침이 되니 말이 통하는 사람 즉, 주인이 나왔고 체크인 한 후 방으로 올라갔다. 우여곡절 끝에 방을 잡으니 피로가 몰려와 골아 떨어졌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정신을 차린 다음 하이디 구경 계획을 세웠다. 시내를 살펴보고 동화에서 하이디가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같이 찾아 간 교회와 산에서 내려와 살았다고 한 곳을 돌아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기로 하였다. 이번호는 여기까지다. 서론이 좀 길었다.



동화 내용 중에 나오는 교회 풍경



마이엔펠트 시내 전경, 하이디는 뒤에 보이는 산 중턱에서 생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동화 속에 나오는 매봉이 보이는 경치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신비한 돌구멍 절 <팔공산 중암암> 일곱 번째 이야기 “벼랑 끝의 해우소”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해우소 | 중암암은 화장실마저 기가 막히게 생긴 도량이다. 바위틈 낭떠러지로 날마다 근심 한 덩어리를 날려 버리는 곳이라서 그런 모양이다.

절벽에 매달린 아래 터에는 요사채가 가까스로 몸을 지탱한다. 넓은만큼 편안하고, 그래서 한층 살가운 요사채다. 손때까지 진득하다.

언젠가 처음 이곳에 들렀을 때의 일이다. 곤줄박이 한 쌍이 요사채의 서까래 아래쪽 틈바구니에 용케도 둥지를 틀었는데, 둥지 속에는 갓 부화한 새끼 다섯 마리가 들어 있었다.

이들은 미처 눈도 뜨지 못하고 깃털도 자라지 못해, 어미 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기다리며 재재거리는 작은 새들이었다. 사람이 다가가도 결코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부처님의 가피 속에 어린 몸을 맡긴 가냘픈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가없는 창공에서 자유의 날갯짓을 꿈꾸는 소중한 생명들이었다. 이 새들은 이제 어느 하늘 아래를 마음대로 날고 있을까?

요사채의 맞은편으로 가 보면, 벼랑을 걸터탄 해우소 하나가 바위틈에 존재를 드러낸다. 배설물이 절벽 아래로 마냥 떨어지도록 만들었기에, 천년 동안 한 번도 친 일이 없는 해우소다. 지금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자물쇠를 채워 두었다. 여기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한 꼭지가 전하는데, 해우소 앞의 설명문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통도사와 해인사 그리고 돌구멍절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던 세 분의 도반 스님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절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일 먼저 통도사에 계시는 스님이“우리 절은 법당 문이 어찌나 큰지 한 번 열고 닫으면 그 문지도리에서 췌가루가 1말 3되나 떨어진다.”라고 하여 은근히 절의 규모를 법당 문 크기에 빗대어 자랑을 하였다.

이어 해인사에서 오신 스님이“우리 해인사는 스님이 얼마나 많은지 가마솔이 하도 커서 동짓날 팔죽을 쓸 때는 배를 띄워야만 저울 수 있다.”라고 하며 절의 규모와 큰 솔이 있음을 자랑하였고 한다.

두 스님의 자랑을 듣고 있던 돌구멍절 스님은 절의 규모 등으로 자랑할 게 없자, “우리 절 뒷간은 그 깊이가 어찌나 깊은지 정월 초하룻날 볼일을 보면 설달 그믐날이라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자랑을 하여 한바탕 크게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돌구멍절은 차마 등을 돌리고 떠나기 어려운 암자다. 그래서일까? 천왕문을 되돌아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시가 조지훈 선생의 「석문石門」이다. 특히 마지막 대목처럼 언제나 가슴이 시큰해진다.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못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벽난간石壁欄干 열두 층계 위에 이제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년千年이 지나도 눈감지 않을 저희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길쭉한 속눈썹에 향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남긴 푸른 도포 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십니까?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 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 감을 어찌합니까?

몇만 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 손길이 저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허공중천虛空中天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 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다음 회는 <무척산 모은암> 첫 번째 이야기 “역사와 신화의 고장 김해”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